

보도 일시	배포 즉시 보도 가능	배포 일시	2023. 3. 23(목요일) 16:00
담당 부서	항만국 북항통합개발추진단	책임자	단 장 남재현 (051-604-3100)
		담당자	사무관 박정철 (051-604-3120)

조승환 해수부 장관 2030 부산세계박람회 예정지 현장점검 - 국제박람회기구(BIE) 현장실사 대비 관계기관과 합동 현장점검 나서 -

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3월 24일(금) 국제박람회기구(BIE, Bureau International des Expositions)의 2030 부산세계박람회 현장실사(4.2~7)에 대비하여 부산시, 부산항만공사와 합동으로 박람회 개최 예정 지역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.

이번 점검은 해수부 장관, 부산시장, 부산항만공사 사장이 직접 현지 시찰을 통해 사업 진행 상황과 교통, 안전, 환경 등 박람회 개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한 후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할 계획이다.

아울러,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“준비된 국가”, “준비된 도시”라는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도록 2022년 12월 준공된 도로, 공원 등 공공시설을 4월 국제박람회기구(BIE) 실사단 방문에 맞추어 개장하고 공공 시설물을 관리청인 부산시에 이관하는 절차도 조속히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.

또한, 북항 1단계 항만재개발사업이 조기에 활성화되도록 조성이 완료된 부지에 대한 투자유치에 각 기관이 적극 협력하기로 할 예정이다.

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“실사단 방문 시 부산이 다른 경쟁국과 차별화 하여 준비된 도시로 보여질 수 있도록 하겠다”라며, “2단계 부지조성 등 2030부산세계박람회 개최를 위한 준비도 차질없이 추진하여 부산이 박람회를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”라고 밝힐 예정이다.

참고로, 2030 부산세계박람회 예정지인 부산 북항은 1단계와 2단계로 나눠 2008년부터 항만재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, 이는 2006년 부산 신항이 개장된 이후 유희화된 북항을 친수공간, 해양관광 및 신해양산업 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해 전체면적 383만m² 공간에 약 7조 2천억 원 규모 (추정)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국내 1호의 대규모 항만재개발 사업이다.